



즉시 배포용: 2022년 8월 1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도로 안전, 교통사고 사망 예방, 뺑소니 단속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서명**

**법안(A.1007-A/S.2021-A)에 따라 지자체는 제한속도 시속 25 마일로 하향 조정 가능**

**법안(A.3964/S.9163)에 따라 신고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도로 안전, 교통사고 관련 사망 예방, 뺑소니 사건 단속 강화에 대한 입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 두 건에 따라, 지자체는 제한속도 시속 25 마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교통사고 사건 현장을 떠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운전, 자전거, 도보 등으로 도로를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은 무책임한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비극과 상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주민의 안전을 기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법안(A.1007-A/S.2021-A)에 따라 지자체는 제한속도를 시속 25 마일로 제한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행 속도가 빠를 수록 사고 발생 시 도보 통행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 타운, 빌리지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 제한속도 상한은 시간 당 30 마일입니다. 지자체에 제한속도 상한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법안은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도보 통행자 사망을 예방합니다.

**Rachel May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애호가로서 저는 제한속도가 너무 높을 때 도로 이용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유연한 권한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를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쁩니다. 도보 통행자, 자전거 이용자, 기타 모든 사람을 위해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많은 사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요합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 제한을 낮추면 공공 안전이 강화됩니다. 제 지역구의 몇몇을 비롯해 주 전역의 지역사회 다수가 속도 제한을 낮추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자체는 반드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과속 사건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상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법안(A.3964/S.9163)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의 벌금을 강화하여 뺑소니 사건을 막고 공공 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이번 법안은 개별 사고 현장에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 벌금을 750 달러~1,000 달러, 재범의 경우 벌금을 1,000 달러~3,000 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Andrew Gounarde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로 치고 도망가는 행위는 파렴치합니다. 오늘 제 법안은 뺑소니 벌금을 최대 3,000 달러로 올려 뺑소니 사고 가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지지자, 의원, 지역사회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안에 서명해 도로에서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전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택근무를 했지만 2021년 1분기 교통사고는 2020년 1분기에 비해 18.4% 증가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첫 세 달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44% 증가했으며 이는 2014년 도시의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그램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강력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이번 신규 법안은 교통사고 관련 사망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주 전역의 도로 사고를 완화합니다.

뉴욕주 자전거 지원 단체인 뉴욕주 자전거 연합(New York Bicycling Coalition) 지원 위원장인 **Daniel Flanzig**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체에 최고 제한 속도 설정에 대한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비전 제로 전략의 커다란 성과이며 교통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필요했던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수 년간 뺑소니 사고가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무책임한 행위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막고 주 전역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만 12세 였던 자녀 **Sammy Cohen Eckstein**를 2013년 과속 차량 사고로 잃은 **Amy Coh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속도를 낮추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주 안전 도로 연합(NYS Safe Streets Coalition)이 새미 법(Sammy's Law)을 지원하여 뉴욕시 속도제한 하향조정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Hochul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주 지자체에 속도제한 권한을 부여하여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 조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추진에 협력해주신 **Paulin** 하원의원과 **May**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우리는 새미법을

포함한 사고 피해자 권리 및 안전법(Crash Victim Rights and Safety Act) 통과를 기대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